

제57주년 6·25 참전용사 위로연 연설

우리 군의 원로와 국군 참전용사 여러분, 우방국에서 오신 참전용사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6·25 참전용사 여러분이 저를 가장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그때마다 마음으로부터 진한 감동을 느낍니다.

지난날 한국전쟁은 우리 국가와 국민들에게 엄청난 불행을 안겨 주었습니다만, 참전용사 여러분을 뵈게 되면 불행한 가운데서도 세계 21개 나라에 우리와 피를 나눈 우정의 친구들을 만든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전용사 여러분은 한국의 든든한 친구이자 든든한 자산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25전쟁은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겼습니다. 총성은 멎었지만 오늘까지도 분단과 반목, 이산가족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6·25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서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재향군인회장께서 든든한 대비와 안보를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와 우리 군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한 치의 오차 없이 나라를 지켜 낼 수 있는 든든한 국방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확고한 대비와 더불어 가장 확실한 안보전략은 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공존하는 길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 요체는 신뢰와 포용입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경계하고 적대적 감정을 부추겨서는 신뢰를 쌓을 수 없습니다. 화해와 협력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가운데 전쟁을 예방하는 현명한 안보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해·협력·포용, 이런 말이 말로 하기는 쉬운 일이지만 실천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와 공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가슴속에 남아 있는 분노와 증오의 감정을 절제하고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에 있어서 지난날을 완전히 복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역사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6·25가 남긴 뼈아픈 교훈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과거의 원한을 극복하고 적대감을 풀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군사적인 대비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국방비 규모는 세계 열한 번째입니다. 지난 20년간 계획으로만 가지고 있던 국방 개혁을 이제는 법으로 만들어 국방투자와 군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지키고 이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이야말로 참전용사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전용사 여러분,

미사일과 북핵 실험의 와중에도 남북관계는 많은 진전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다.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남북 간 신뢰를 확대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달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간 철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핵심적인 군사 요충지였던 개성공단이 남북한 경제협력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는 대화에 의한 해결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왔습니다. 6자회담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적 해결의 길로 확실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9·19공동성명에 이은 2·13합의는 북핵문제 해결을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평화구조가 정착되면 육로를 통해 북한과 중국·러시아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한국경제에 새로운 지평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와 군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의 국방을 주로 미국에 의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보는 우리 군을 중심으로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원칙 아래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일부 감축,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단계적으로 풀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미루어 왔던 일들이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부분 해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더욱 강력하고 효율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참전용사 여러분,

우리 국민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6·25 전사자의 유해발굴사업을 계속하는 등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릴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내외 참전용사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16개 참전국의 국민들에게도 우정의 인사를 전해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